



오는 29일까지 오월미술관에서 '나는 너다'를 주제로 개인전을 여는 정희승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강렬한 자화상을 여러 점 선보인다.

“나와 너가 다르지 않음”을 이야기

인터뷰 후 작가는 사진 촬영을 위해 두 점의 대형 자화상 '사이'에 섰다. 100호 가득 작가의 얼굴이 담긴 '빛-스미다' (2018)와 상반신이 그려진 '문 앞에 어둠' (2015)이다. 옆모습에, 지극히 눈을 감고 있는 인물은 강렬하고, 화면을 세로로 가로지르는 붓질도 인상적이다. 한 작품에선 빛이 쏟아지는 듯하고, 또 다른 작품은 어둠이 밀려오는지, 밀려가는 지 가능하기 어렵다.

서양화가 정희승 작가를 개인전 (29일까지)이 열리고 있는 오월미술관(동구문화재단 291-1)에서 만났다. '빛-스미다'를 표지로 삼은 도록을 받았을 때 '나는 너다'라는 전시 제목도, 자화상도 모두 강하게 다가왔다. 전시에는 두 작품 이외에도 작가의 자화상이 여럿 나왔다.

시간을 거슬러 유년시절의 초상까지도 등장한다. 온화한 표정, 조용한 말투, 스스로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말하는 그에게 '나'가 전면에 등장하는 작품으로 전시회를 꾸리는 부담감이 만만찮을 터였다. 작가는 "이번 전시가 두렵기도 했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며 "나의 작품에 대해 중간 점검을 하면서 결국은 나의 모습을 들여다 보게됐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열린 '도원으로 가는 길' 이후 12년만에 개최되는 이번 전시에는 50여점이 나왔다. 대부분이 2015년 이후의 작업들이지만 '데뷔작'이라 할 수 있는 1980년대 판화작품, 1990년대 말 불로동 시절 작품도 선보이고 있다. 주 전시작 중 하나는 인물화 '나는 너다' 시리즈다. 인물들은 작가 개인에서 출발해, 허달용·김우성 등 동지애를 느끼는 동료 작가들로 건너간다. "나는 인간이 나로서 끝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타자는 나의 또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걸 확인하는 게 사랑의 과정이구

정희승 개인전 '나는 너다', 29일까지 오월미술관 '빛-스미다' 등 자화상, 5·18 '창' 시리즈 눈길



‘인개’

요. 동료들을 소재로 삼은 건 작가로서 늘 같은 고민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곧 나로 보였기 때문이죠.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어떤 고통과 희열을 겪는지 가장 잘 아니까요."

"나와 너가 결코 다르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그의 시선은 주변을 넘어 우리 사회와 지구촌으로 시선을 확장, 슬픈 인물들을 호명한다. 지난해와 올해 그린 12점의 연작 '나는 너다'에는 시리아 난민 알란 쿠르디와 세월호 희생자의 교복과 신발, 그리고 푸른 눈물을 흘리는 작가의 자화상이 함께 담겼다.

"해마다 다가오는 오월의 이야기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직접적인 묘사보다는 나와 이 세상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었죠. 우리는 서로 남일 수 없고 결국은 '나는 너'인 거죠." '빛-스미다'에 대해 작가는 "예술가에게 영감이 스미는 순간, 무언가 변혁하고 다가오는 것을 그리고 싶었다"고 말한다.

"작업하며 부딪치는 어려움이나 삶의 힘듦은 절

국 내 고민을 드러내고, 내 고민에 당당히 마주할 때 적격이나 해결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를 보이는 건 힘든 결심이지만 분명 카타르시스도 있습니다. 자신의 진솔한 고백이 화면에 터져나오거든요. 화면에 눈물이 흐르는 건 제 자신이 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의 울림이라도 줄 수 있으면 좋지요. 작품은 오롯이 감상자의 몫입니다."

조금은 결이 다른 작품 '인개' (2000)가 발길을 붙잡는다. 급남로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을 온화한 시선으로 담아낸 작품으로 발표 때마다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작가는 웃었다. 작품이 새 생명을 얻은 것이니, 작가에게는 기분 좋은 일일 터다.

"전시 준비 기간 오래된 작품들을 찬찬히 다시 들여다보며 옛 기억들을 떠올렸네요. 대학 졸업 후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던 시절, 좋아하고 의지가 되는 선배들을 만난 불로동 시절의 작품에선 제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지 새삼스레 알게 되었구요."

전시에서는 아내의 모습을 그린 '황사' (1999)를 비롯해 목판화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김씨의 초상' (1984) 등 열혈 청년 작가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작품도 만날 수 있다.

그밖에는 '5·18 버스'를 소재로 한 '창' 시리즈도 눈길을 끈다. '오월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으로 버스에 타고 있는 젊은 이들의 모습에서 오월의 미래를 본다.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약자들을 향한 한결 같은 시선은 그의 화폭에 여전히 살아있다. 세상을 떠난, 아를 뱉는 노동자의 가방에서 발견된 컵라면을 소재로 한 '유품-흐르는 육계장'이 전하는 이야기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 최태지)이 올해 마지막 발레살롱콘서트 '밍쿠스×트리플 빌'을 오는 12~13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공연한다. 발레살롱콘서트는 관객들이 발레를 보다 친숙하게 느끼도록 기획된 공연이다. 이번 공연은 차이콥스키와 더불어 발레 음악의 거장인 루드비히 밁쿠스의 음악으로 구성된 트리플 빌 형태의 공연으로 '돈키호테', '라 바이테르', '파키타'를 준비했다. 희극발레 대명사인 '돈키호테'는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를 바탕으로 하나 원작과는 달리 돈키호테가 주인공이 아닌 이발사 바질과 여관집 딸 키티리가 주인공으로 이들의 사랑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라 바이테르'는 프랑스어로 '인도의 무희'를 뜻하며 신비롭고 이국적인 인도 황금 제국을 배경으로 한다. 아름다운 무희 니키아, 권력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전사 솔로르, 무희에게서 전사를 빼앗으려는 공주 감자티, 무희에게 욕망을 품은 최고 승려 브라만 등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배신이 드라마틱하게 그려지는 작품이다. '파키타'는 9세기경 프랑스 점령하의 스페인을 배경으로 한 전형적인 프랑스 궁중발레이다. 집시 소녀 파키타와 프랑스 점령군 루시앵의 사랑을 그린 귀족적이면서도 화려한 작품이다. R석 1만5000원, S석 1만원, A석 5000원. 회관 홈페이지, 티켓링크 예매 문의 062-522-8716. /전재제 기자 ej6621@kwangju.co.kr

천연염색 가방 '실용주의 선언'



김명숙 전, 8~21일 나주 한국천연염색박물관

'천연염색으로 만나는 가방.'

나주 한국천연염색박물관이 김명숙 작가를 초청 기획전 (8일~21일)을 개최한다. 지난 2010년 '천연의 색으로 희망을 담다'를 주제로 열렸던 첫 번째 개인전 후 10여년만에 갖는 김 작가의 개인전이다.

'실용주의 선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김 작가는 천연염색으로 작업한 다양한 가방을 선보인다. 김 작가는 무명섬유, 가죽, 대나무 채상 등 다양한 소재를 선택한 후 천연염색과 옷칠을 통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개성있는 가방들을 만들어냈다.

다채로운 색상을 입힌 대나무로 이루어진 작품은 베를 짜듯 얽힌 다채로운 짜임새가 색다른 느낌을 전하며 염색성이 좋은 가죽에 그가 즐겨 사

용하는 쪽과 꼭두서니 등 천연염료를 활용해 색감을 입힌 가방들이 인상적이다. 무명천에 소박한 먹 염색을 한 솔더백, 감을 활용한 염색으로 색다른 맛을 보여주는 토트백, 대나무 뿌리 손잡이가 인상적인 솔더백 등도 눈길을 끈다.

그의 작품은 무엇보다 장식을 최소화해 재료와 천연염색이 갖고 있는 매력에 한층 돋보이며 일일이 한 땀 한 땀 새긴 바느질 자국과 세밀한 붓터치가 아날로그 감성을 전한다. 특히 모두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옷칠은 지난한 작업 과정과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과정으로 작가의 공력을 느낄 수 있다.

김 작가는 목엔젤, 광주시 규방문화연구원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또 랑시공방 대표를 맡고 있으며 천연염색지도사로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